

하이에크와 롤스: 누가 옳은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 글은 『자유주의의 지혜』(2007, 아카넷)의 제7장
‘존 롤스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허와 실’(439~538) 중에서
제5절을 복사한 것이다.

5. 하이에크와 롤스: 누가 옳은가?

하이에크와 롤스는 제각기 위대한 정치경제학자 겸 사회철학자였다. 시카고 대학의 여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 Nussbaum)이 20세기의 존스튜어트 밀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롤스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였다. 1970년대 이래 “우리는 모두 롤시안(We’re all Rawlsians)”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정치적 학문적 영향력은 강력했다. 그러나 영국의 유명한 『에코노미스트』지(誌)는 하이에크를 일컬어 “20세기 가장 위대한 자유의 대변자”라고 격찬했을 정도로 그의 사상의 정치적 영향력과 학문적 영향력은 매우 강력했다(민경국, 2007).

롤스와 하이에크의 사상적 기반은 모두 학제융합적이다. 경제학에서는 롤스를 정치경제학자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로 그의 사상은 풍부한 경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하이에크의 사상은 풍부한 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롤스의 사회철학은 고유한 철학의 영역을 넘어서 광범위한 학문적 여정의 결과이다. 심리학과 정치철학을 비롯하여 법철학의 독보적 영역을 개척하면서 그의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개발하고 있다. 그의 사상의 조상은 존 스튜어트 밀과 케인즈 등, 프랑스 계몽주의의 전통이다.

하이에크의 사상의 법철학적, 정치철학적 그리고 윤리학적 바탕도 대단히 풍부하다. 과학철학, 역사학,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하여 그 결과를 자유민주주의 철학의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그의 사상의 계보는 스미스, 흄 등,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의 전통이다.

두 석학의 나이 차이는 22세이다. 하이에크는 1899년생이고 롤스는 1921년생이다. 하이에크는 1992년에, 롤스는 2000년에 세상을 떠났다. 하이에크의 사상이 이미 성숙되고 이것이 영미세계에 알려져 하이에크가 유명해지던 1940년대에 롤스는 학문적 여정이 시작되었다. 학문의 성숙시기를 보면 롤스는 하이에크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뒤지고 있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철학계에서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에 노직이 모든 자유주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취급하고 롤스와 노직을 대립시키고 있다. 특이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하이에크를 노직이 대변하고 있는 로크 전통의 권리 이론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직만을 연구하면 하이에크는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오히려 하이에크는 좁고 노직은 넓다는 것이다.¹⁾

그러나 이런 해석은 전적으로 오해이다. 하이에크는 롤스와 마찬가지로 로크-노직의 전통의 자연법과 자연권사상에 결코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롤스와 하이에크는 제각기 칸트의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칸티안(Kantian)”이다. 여기에서는 두 석학의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하이에크는 롤스를 빈번히 인용하고 있다. 공리주의와 관련된 부분, 법 개념과 그리고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하이에크가 롤스를 인용한 것만을 보면 하이에크는 롤스에 대하여 대단히 우호적이었다는 인상을 남겨놓았다. 그러나 그 두 사상가는 대단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 같이 칸티안이라고 해도 전적으로 다른 사상가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누가 옳았는가?

하이에크와 롤스 사상의 시대적 배경

두 석학은 같은 동시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의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정치사적 요소는 매우 다르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의 등장배경은 자유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컸던 시기였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진영이 생겨났던 시기이다. 동유럽과 구 소련의 사회주의 사회의 등장이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는 실업문제와 빈곤을 야기하는 사회체제라는 믿음이 팽배하던 시기였다. 자유 자본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부도덕한 질서라는 것이었다. 이런 시장사

1)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진덕규다. 그는 하이에크는 노직의 아류인 것처럼 보고 있다. (진덕규 2002: 290 쪽)

회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이에크가 성장하던 20세기 초에 이런 주장을 하던 진영이 있었다.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경제통제가 갈채를 받고 있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는 새로운 사회 건설이 갈채를 받고 있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험이었다. 사유재산제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서방국가에서는 자본주의의 극복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수정이 목적이었다.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혼합이 그것이다. 시장의 불완전성을 시정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사유재산권과 사적 자율을 억제해야만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 지금도 지구촌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서구사회에서는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또 하나의 정치적 이상이 압도해가고 있었다. 복지국가의 도입여부가 문명된 사회의 잣대였다. 그러나 자유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복지국가뿐이 아니었다. 또 하나가 있었다. 다수의 결정이라면 무엇이든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민주사상이 그것이다. 자유사회를 쪼먹는 것이 민주정부였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든, 수정자본주의든, 복지국가체제든 민주사상이든, 이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그것이다. 인간이성은 사회를 조종 통제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믿음이다. 이런 사상은 경제계획과 규제 사상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질서는 목적에 합당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합리적인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대항했던 것은 지적인 자만을 그 특징으로 하는 그런 사상이었다. 그가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는 두 가지였다. 그 하는 자생적 질서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론(지식이론)이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합친 것, 이것이 진화론적 합리주의 사상이다. 전자는 인간이 계획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질서가 내생적으로 생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후자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성격과 인간이성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규명한다.

지식이론에서 하이에크는 인간이성은 사회를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런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과 규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계획과 규제를 포기한다고 해도 질서가 유지되

고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그의 사상은 미완의 사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생적 질서이론이 이런 미완을 극복해주고 있다.

롤스의 사상이 형성되던 시기는 1960년대였다. 사회가 극도로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그 하나는 월남 전쟁이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월남전에 강제 동원되고 있었다. 반전(反戰)운동이 미국사회를 뒤흔들었다. 국가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그 두 번째는 이런 반전운동에 뒤이어 등장한 운동인데 이것은 민권운동과 흑인해방운동이었다(Daniels, 1975, xv). 이 운동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그것이다. 미국의 주정부들이 흑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공공시설의 이용권도 제한했고 심지어 경제활동에까지도 차별했다. 이런 일들이 전부 연방법원의 묵인 하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이런 인종차별은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말한다. 이런 정치사적 사건은 이념적으로 해석한다면 공리주의였다.²⁾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봉사해야 한다는 상황이 공리주의 이상이다. 월남전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적 사건과 그리고 공리주의 사상은 이런 식으로 일치되었다. 정치적 사건들의 기반은 공리주의 사상이었던 것이다. 이런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배경에서 롤스는 정치와 사회경제의 “기본적인 구조”와 관련하여 정의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유와 기타 사회적 재화의 분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정치적 권력의 정당한 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롤스는 기존의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의심했다. 사회질서를 백지 상태에서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간이성에 의해 사회질서를 계획하고 설계하여 기존의 질서를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믿었다. 이런 믿음, 인간이성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롤스의 사회계약론이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를 사회철학에 적용한 홉스-루소 전통이 그것이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이론이 롤스의 사회계약론과 대비된다.

롤스의 사상의 출발점은 다양한 인간들과 다양한 인간 그룹들이 사는 세계이다. 그리고 이 세계에는 자원의 희소성이 지배한다. 이런 세계에서 그들은 서로의 협동과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자유와 같은 사회적 재화를 더 많이 갖고자 한다. 이런 성향 때문에 사회는 항상 잠재적인 갈등구조를 그 특징

2) 롤스의 초기논문들을 보면 벤담의 공리주의를 비판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논문이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규칙의 두 가지 개념 Two Concept of Rules)”이다. 그리고 “헌법적 자유와 정의의 개념 (Constitutional Liberty and the concept of Justice)”도 그렇다.

으로 한다는 것이다.

롤스의 문제는 다원적인 사회에서 인간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의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의 문제이다. 그의 생각은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주의 사상의 회복이 아니었다. 미국전통의 자유주의는 공리주의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인종차별이 아니었다. 그 자유주의는 세 가지 원칙이었다. 노예의 철폐, 법에 의한 모든 시민들의 평등한 보호 원칙, 그리고 인종과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하여 투표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Boaz, 1997: 112 쪽)

롤스는 이런 원칙들의 회복에 머물지 않았다. 이런 원칙만을 가지고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숫자에 좌우되는 공리주의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수를 보호할 수 없다고 믿었다. 이것이 자유의 원칙과 함께 차등원칙이다. 소수파와 약자, 서민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서민층 또는 소수파에 대한 특혜정책과 우대정책이 그것이다.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과 차등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롤스가 구상한 새로운 체제는 1970년대 미국과 유럽사회의 좌경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의 기득권층을 지금까지 우대해온 정치경제 제도를 롤스가 말하는 모든 서민계층에 유리한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 이런 정치적 요구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소수파와 서민층을 위한 우대정책을, 유럽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정책과 친(親)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계획과 규제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서민층을 위한 열정을 지닌 좌파가 서구사회를 지배했다. 이런 서구사회의 좌경화에 맞서서 싸웠던 인물이 하이에크였다. 그의 학문적 그리고 정치적 적(敵)은 동유럽 사회주의나 60년대 이후 유행했던 케인스만이 아니었다. 복지국가의 이름으로 또는 우대정책의 이름으로 펼치는 간섭주의까지 포함되었다. 정부의 규제는 그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규제가 전체경제가 아니라 부분적이라고 해도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이성이 의도적으로 복잡한 경제현실을 규제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차별을 금지라는 법의 지배다.

하이에크의 이런 비판은 아직도 유효하다. 1989년 동유럽이 무너진 후에도 작은 정부 대신에 큰 정부로 가려는 힘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힘을 막기 위한 효

과적인 무기로서 하이에크는 많은 유산을 남겨놓았다. 그 유산이 자생적 질서와 정의 그리고 법의 지배원칙이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롤스와 하이에크를 비교하고자 한다. 롤스가 이런 말을 하면 하이에크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이에크의 말에 롤스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상상하여 이 두 석학의 사상을 비교 · 평가하고자 한다.

행동조정의 문제나 분배문제나

롤스는 1971년 자신의 저서에서 사회적 문제를 협력의 결과로 생겨난 재화의 분배문제로 보았다. 정의도 그래서 분배정의이다. 그는 모든 사회구조, 제도, 법, 윤리, 국가 등을 분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것이 좌파의 고유한 시각이다. 이와는 달리 사회문제를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사회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것이 이른바 주류경제학, 공리주의의 전통이다. 법과 제도, 윤리 등, 사회구조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이 두 가지 시각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사회문제를 행동조정의 문제로 본다. 왜 하이에크가 사회적 문제를 분배문제 대신에 행동조정의 문제로 보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개인들의 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즉 분업적인 사회에서 개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타인들의 행동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동조정이란 나의 뜻(행동)과 다른 사람의 뜻(행동)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정이 되어야 내가 의도한 계획과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맞아야 내 목적도 달성되고 고객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다.

행동조정은 성공과 실패의 전제조건이다. 그래서 행동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행동조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식이다. 내가 내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나의 계획이 타인들의 계획과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조정이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나는 타인들이 생각, 타인들의 계획, 타인들의 행동을 미리 알아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하면 조정과 협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행동조정에서는 개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들에 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이에크의 사회철학의 출발점은 인간들이 얼마나 알 수 있는가, 인간들이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지식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관한 인식론적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따라서 그의 사회철학의 출발점은 인식

론인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에게 인간이 이기적이나 이타적이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성은 구조적 무지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민경국, 2006). 이런 구조적인 무지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타인들의 협력과 행동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2장에서 상세히 다루었듯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행동규칙과 그리고 가격이다. 그러나 롤스는 협동과 협력(이것은 행동조정과 같은 의미이다.)의 결실을 인간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의 분배나 또는 자원의 배분은 행동조정의 결과이다. 그리고 소득분배나 또는 자원배분의 문제는 사회에 대한 관찰 방법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행동하는 개인의 관점에서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 자신의 관점에서 사회를 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이런 관점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 대신 아래로부터 위로 보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관점이 방법론적으로 옳다고 본다. 그것은 행동하는 개인의 관점에서 사회를 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문제를 분배문제 또는 자원배분 문제로 보는 시각은 지식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간의 동기만을 문제시한다. 이기적이나 이타적이냐의 문제가 그것이다. 롤스가 바로 그렇다. 하이에크에게 사회를 이해하는데에는 그런 동기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무지의 늪에서 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Hayek, 1969)

하이에크의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무지의 인식은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소크라테스의 격언이다.(Hayek, 1971: 30쪽) 인간 이성은 무지하다는 것, 인간 이성의 구조적 무지, 이것은 하이에크가 21살 때 쓴 『감각적 질서』의 주제이다.³⁾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기들은 현명하고 완전하다고 믿는다. 대표적으로 존 스튜어트 밀이 그렇다.(사우월, 1990). 하이에크는 무지한 자의 범주에 현자(賢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포함한다. 이것이 하이에크와 같이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롤스와 같은 간섭주의자

3) 이 책은 1952년에 책으로 발간했다. The Sensory Order, Oxford, 한글판은 필자가 번역하여 자유기업원에서 발간했다.

와 다른 점이다.

흔히 지식인들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자시들은 현명한 것처럼 말한다. 이것을 하이에크는 지적 위장(偽裝)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이 전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한다.

자생적 질서나 인위적 질서나

롤스는 혼란을 극복하고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권자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계획하는 이성애 의해 질서는 계획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합리적인 사회질서는 인간의 계획에 의해 창조되어야 하고 또 인간이성은 이런 질서를 창조할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다. 시장과 법 규칙 그리고 도덕규칙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꼼꼼히 따져서 만들어야 비로소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전통이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데카르트-홉스-루소-벤담-존 스튜어트 밀-콩트-케인스-주류경제학의 전통이다. 이 전통은 인간이성에 대해 무한정으로 신뢰하면서 인위적인 질서,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만든 질서를 신뢰했다.

그러나 하이에크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미신이라고 말하면서 일생동안 반격했던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 그는 인간이 만든 질서(man-made order) 대신에 자생적 질서를 중시했다. 이 개념은 현대적인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자생적 질서는 시장과 언어, 도덕체계 그리고 관습법과 같은 법체계를 포함한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의도하지도 않았음에도 생겨난 것이라는 의미에서 자생적 질서이다. 이런 질서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설명한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흄 그리고 아담 퍼거슨 등의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자들이다.

하이에크는 이런 전통에 서서 자생적 질서는 인간행동의 결과이지 인간계획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 그것은 무의도적으로 창조된 질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는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 주권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질서의 원천은 물리적 세계처럼 질서의 내부에 있는 것이지 질서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는 문화적 진화론을 이용하여 자생적 질서의 생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에크는 진화와 자생적 질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롤스는 이런 자생적 질서 사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질서의 원천은 질서의 밖에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질서를 만드는 외적 실체는 롤스가 구상하고 있는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이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질서를 계획하고 만드는 사람들이다. 질서를 만들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그들의 이성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 인간이성은 사회가 없이도 다시 말하면 사회의 밖에서 이미 형성된 존재이다. 인간이성은 사회와 독립적이라고 믿는다.

하이에크는 이런 이성을 반대한다. 인간이성은 사회와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에게 인간이성은 사회의 밖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형성된다. 따라서 사회를 통해서 비로소 형성되는 인간이성이 사회를 설계하고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과학지식이나 현장지식이나

롤스는 사회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회학적 지식, 심리학적 지식, 경제학적 지식 등,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어떻게 제도들이 작동하는가에 관한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믿음인지도 분간할 줄 안다.

그런데 사회계약에 참여한 개인들은 자신에게 고유한 지식은 알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사회과학의 과학지식은 잘 알면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 직접적으로 중요한 현장지식, 지역적 지식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특히 그들은 자신이 어떤 지방출신인지 어떤 가정출신인지 자기 친구와 친족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롤스의 원초적 상황은 “무지의 장막”이 드리워져있다.

롤스의 정치철학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제각기 삶의 현장에서 터득한 지식, 각 삶의 현장에 흠어져 존재하는 현장지식, 각 지역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지식, 이런 지식을 롤스는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사회과학 지식만을, 즉 전문가-엘리트의 지식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롤스의 이런 태도는 유익한 사회질서의 원천은 현장지식이나 지역적 지식이 아니라 과학지식, 전문가의 지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지식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것이야말로 하이에크가 말하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미신(迷信), 과학주의의 오류다. 건축기술자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듯이 확실한 사회과학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미신이다. 과학의 힘을 이용하여 법과 도덕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미신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지식이 인간의 삶을 위해 기여한 것은 엘리트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못하다. 이미 제2장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우리의 언어는 언어학자의 덕택이 아니다. 우리의 법과 행동규칙, 도덕규칙들이 법학자나 윤리학자의 덕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행동규칙들은 99%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법학자나 윤리학자가 만든 것들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구조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학자들의 지식의 덕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롤스의 엘리트주의적 자만, 지적 자만은 그가 기술하고 있는 원초적 상황에서 최고 절정을 이루고 있다. 그가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을 강조하는 것도 간섭을 위한 지식이 시장참여자들의 지식보다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2003년 나의 저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두 가지 종류의 합리주의와 관련하여 자세히 밝혔듯이 현장지식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지식인의 지식, 전문가의 지식만을 중시하는 접근법은 큰 정부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는 현장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작은 정부를 요구한다.

하이에크는 1952년 『개인주의와 경제질서』에서 전문가의 지식보다 개개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지식은 각처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지식이다. 이런 지식은 삶의 현장에서 개개인들이 갖고 담은 지식이다. 이런 지식의 활용을 통하여 자신의 번영은 물론 사회 전체의 번영까지도 가져다준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사회질서의 원천은 전문가의 지식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지식, 지역적 지식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각처에서 인간들이 타인들과 협력과 협조를 하면서 삶을 위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언어도 생겨났고 필요한 관습과 관행도 생겨났고 도덕 규칙도 생겨났다. 보통사람들이 모여서 계획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을 위어가는 과정에서 무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사회구조 속에는 수세대를 거쳐 수천만, 수억의 인간들이 습득한 경험, 동시대인들이 겪은 경험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수천만의 지혜가 담긴 것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행동규칙과 사회구조이다. 이런 질서의 원천은 엘리트의 지식이 아니라 보통사람의 현장지식, 지역적 지식이다. 그리고 특

히 이런 지식들 가운데 대부분은 수세대동안 같고 닳은 지식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교과서에 들어있는 사회과학 지식을 존경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진 지식, 각 지역에서 제각기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축적된 지역적 지식에 대한 존중, 이것이 하이에크의 확신이다. 전문가가 현장지식에 대한 존중,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에 대한 겸손, 이것이 자유주의의 핵심적 도덕이다. 자생적 질서의 원천은 보통사람의 지식이다.

가짜 개인주의와 진짜 개인주의

롤스의 정의론에서 특징적인 것은 원초적 상황에서 사회질서를 계획하고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성분, 출신가정, 출신지역, 소속 종교 등 아무것도 모른다. 전통도 모른다. 애비 에미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은 제 애비도, 에미도 모르고 샷대질 하면서 사회계약을 맺을 것이다.

롤스에게 개인들의 재주, 외모, 출신 성분, 사회적 지위, 소속된 인종이나 그룹은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그것들은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요소일 뿐이다. 가족이나 그룹에 대한 애착심이나 의무감도 적(敵)일 뿐이다. 그는 모든 자의적 요소가 배제된 인격을 진짜 인격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격이 도덕적 평등의 기반이다.

그러나 이런 개인주의는 가짜 개인주의이다. 경제학에서 흔히 경제인이라고 부르는 호모 에코노미커스와 같은 처지이다. 이것도 비역사적이고 인공적인 인간이다. 이런 인간을 전제로 하는 이론은 원자적 개인주의이다. 그리고 가짜 개인주의이다. 이런 인간을 전제로 한 것이 주류경제학이다.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롤스는 주류 경제학으로부터 철저히 영향을 받은 철학자이다.

이런 원자적 인간을 전제하고 정의론을 구성했다는 이유로 철저히 비판하면서 이런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마이클 샌들(M. Sandel)을 비롯한 공동체주의이다. 이것은 뒤에 가서 설명할 것이다(제8장). 다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롤스가 아무리 변명한다고 해도 그에게는 이런 신고전파 경제학의 원자적 인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1981년을 기점으로 하여 롤스는 자신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도덕적 인간(moral person)”으로 바꾼다. 그러나 이것도 이론적 구조물이다. 현실의 인간이 아니라 구성주의적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 개체에 대한 하이에크의 견해는 보다 역사적이다. 인간을 진화적 관

점에서 본다. 인간 개체를 도덕적 요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인간들의 개체성은 각자 고유한 재주와 용모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고유한 상황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가정, 마을, 학교, 교회 또는 친구와 친족 등 소규모의 그룹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존립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들은 제각기 소규모 그룹에 대한 애착과 의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행동도 다양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제한되어 있다. 알고 있는 범위도 좁다. 그들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그러나 타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사회질서의 논의에서 인간의 이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개인주의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질서와 관련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처럼 원자적 인간, 완전한 지식을 가진 인간, 또는 “도덕적 인간”과 같은 비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는 이론은 지적인 자만과 그리고 도덕적 위선을 야기한다.

롤스의 사회철학이 가짜 개인주의라는 것은 그의 사회계약론의 합의 또는 동의라는 말에서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원초적 상황에 있는 계약당사자들은 이기심 대신에 “정의감”을 가진 인간들이라고 가정하고 있다.⁴⁾ 그에 의하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정의감에 합당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필요한 사회과학 지식을 알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정의감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의감은 수없이 많다. 한 가지 행동을 두고 정의롭다거나 정의롭지 않다거나 다양하게 평가한다. 그리고 사회과학 지식도 다양하다.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따라 어느 한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린다. 어느 한 대상에 대한 해결책도 서로 다르다. 계약참여자들이 어느 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정의감과 서로 다른 과학지식이 각각 어느 하나로 수렴해야 한다.

4) 정의감을 중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정의의 원칙을 찾으려는 롤스의 노력은 1993년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이다. 그는 현대의 민주사회에서 “정의감 (sense of justice)”의 전통들을 언어로 분명하게 표현하여(articulation) 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의 원칙들로 작성해 내려고 한다. 롤스는 정의감을 개인들이 “정의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Rawls, 1971, 1981)

롤스의 사상에서는 어떻게 이들이 수렴하는가에 관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그의 이론적 구조는, 엄밀히 따지면, 어느 한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정의감을 가지고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사회계약론의 특징이다.

하이에크는 이런 시도를 구성주의의 한 특징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를 표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격체로 간주함으로써 사회를 특정의 목적을 추구하는 실체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의 사상은 집단주의 허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사회이론이 없는 정치철학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Kukathas, 1989).

분배정의와 정의의 규칙

정의의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하이에크와 롤스의 사상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롤스에게는 정의를 협력의 결과로서 생산된 재화의 분배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정의는 분배정의 또는 사회정의이다. 이런 분배에 대하여 하이에크의 비판은 가혹하다. 로버트 노직처럼 자연권과 자연법적 기반에서 분배정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비판은 여러 가지이다. 그 하나는 분배정의는 개념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의 분배결과에 대해서 정의롭다거나 정의롭지 않다는 식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식의 평가는 시장경제에는 분배를 주관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의인화의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인화의 오류는 시장경제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장경제는 자생적 질서이다. 각 개인들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보수는 그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계획하여 분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자가 계획하여 분배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에서의 분배결과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결과이지 그 어떤 사람의 의도적인 분배의 결과가 아니다.

이런 자생적 결과에 분배정의나 사회정의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의인화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분배정의는 그래서 공허하고 의미 없는 개념이다. 사람들의 상대소득을 결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누군가가 분배의 책임을 진 사람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이에크가 분배정의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식이론의 관점이다. 즉, 정부는 경제를 계획하고 규제하여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질 수 없

다. 그럼에도 분배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더 악화시킨다.

셋째로 분권적인 교환시스템은 지식의 효율적인 사용과 그리고 자원의 최선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에 분배적 정의를 부과하고 재분배를 실시할 경우에는 개개인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구조를 왜곡하고 시장신호의 지식전달이 왜곡되어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악화된다.

넷째로 분배정의를 함께 벌어들이고 이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한다. 분배정의를 기초가 되는 도덕은 그래서 연대감 또는 유대감 같은 도덕이다. 그런데 이런 도덕은 원시사회나 소규모 사회,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끼리의 사회에서나 적합한 도덕이다.

하이에크는 이 도덕을 본능적 도덕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실현은 이런 본능적인 소규모 사회의 도덕을 거대한 사회에 적용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소규모 사회의 도덕은 물론 거대한 사회의 도덕까지도 파괴한다.

하이에크가 의인화적 개념으로서 분배정의 또는 사회정의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가 정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정치철학에서 정의는 롤스의 정치철학만큼 중심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의의 개념이 완전히 롤스와 다르다

하이에크의 정의의 개념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정의 또는 불의란 책임 있는 행동과 관련된 경우에만이 의미가 있다. 정의란 아무도 책임이 없는 분배의 결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인들, 그룹들, 그리고 기업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 그런 행동규칙이 제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흙, 아담 스미스이후 자유주의가 채용한 “정의의 규칙”이다.

자유주의의 도덕적 공백?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분배정의를 위한 하이에크의 비판이 충분하냐의 문제이다. 그의 비판을 종합하면 벤담 전통의 고전적인 공리주의는 아니라고 해도 그의 접근법은 결과론적이다. 그의 결과론적 비판은 전적으로 옳다. 이런 비판은 그 자신의 은사였던 미제스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사회정의를 위해 정부가 시장과정에 한번 개입하기 시작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이런 부작용

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간섭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간섭이 간섭을 낳는 간섭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시장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정치철학자 배리가 그의 1998년 저서 『포스트 공산주의 시대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유감스럽게도 미제스-하이에크의 이런 이론은 도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다.(Barry, 1998: 60 쪽) 그는 교환될 물건에 대한 소유자격의 도덕적 원천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하면 교환이전의 분배의 도덕성 문제, 이것은 비로소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이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에 대한 소유 자격이론이 빠져 있다고 한다. 왜 이것이 내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에 비로소 이것을 타인의 것과 교환할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에 이런 도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롤스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런 도덕적 공백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분배정의를 가지고 이 공백을 채우려고 했다. 그는 자연적 재주와 능력 그리고 개인적 특성의 개인주의적 이용을 허용하는 정의의 개념에 도전했다.

그러나 롤스의 정의이론은 이런 공백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개인적 재주와 능력 그리고 개인적 특성을 공유재산으로 하자면 그의 주장은 우리의 직관에도 맞지도 않기 때문이다. 설사 그런 것들이 “자연의 로토”를 통하여 개개인들에게 분배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공유재산으로 취급해야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

그리고 공유제하에서는 인센티브 문제도 생겨난다. 능력과 재주는 주어진 것이 아니다.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능력의 내용, 개발 방향, 용도는 비로소 발견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발견이 기업가적 역할이다. 이런 기업가적 발견을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공유제는 발견을 위한 기업가적 인센티브를 왜곡한다.

마찬가지로 로크와 노직의 노동의 소유자격이론도 자유주의의 소득에 대한 권리의 도덕적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적합하다. 노동이론은 사회주의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노동의 투입(공로)이 보수 또는 소유 자격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잘못이다. 노동의 투입 그 자체를 결정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가의 판단, 즉 기업가적 발견이 생략되어 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작동원리는 창조적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 행위로서 기업가적 발견이다. 시장과정을 분석해 보면 그

과정은 동태적 효율성이 그 특징일 뿐만 아니라 창조자-발견자가 발견한 것과 창조한 것에 대하여 가질 도덕적 자격이 있다. 발견자-소유자 원칙이 그것이다, 이런 원칙은 진화적 과정을 거쳐 현대의 사법(私法)에 정착되어 있다(Epstein, 1995).

따라서 시장에서의 성공은 순수한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기업가적발견의 결과이다. 커즈너가 보여주고 있듯이 시장에서의 보수의 도덕적 원천은 기업가적 발견이다(Kirzner, 1995). 타인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의 발견이다. 이런 기업가적 발견과 그 대가는 물론 결과 지향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분배는 하이에크나 롤스가 보는 것처럼 결코 도덕적으로 자의적이지 않다. 그들의 결론은 지나치게 을 강조한 결과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롤스와 하이에크

하이에크와 롤스 사이에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너무도 많다. 그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재산권이다. 하이에크는 재산권의 역할을 강조한다. 왜냐 하면 재산은 자유와 그리고 정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예를 들면 『치명적 자만』에서 그는 소유가 없는 곳에는 정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 하면 소유의 개념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정의롭지 않음이란 그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의와 불의는 소유의 개념에 첨가된 개념이다. 이런 의미는 로크로부터 기원한다.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는 정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로크가 네덜란드와 영국이 변영할 수 있었던 조건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였다. 그리고 재산권은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재산의 이용과 처분할 권리는 자유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유를 위해 반드시 재산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재산을 소유할 자유만 주어진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제5장에서 설명한 그레이는 재산이 없는 사람은 개인적 자율성이 없다고 말한다.(Gray, 1989/1995: 60쪽) 그의 자율성 개념은 재분배를 요구하는 개념이다.

롤스는 하이에크와 전혀 다른 시각이다. 그의 정치철학에서 사유재산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의 정의의 개념이 분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회철학은 자유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분배정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자유는 분배정의의 부산물일 뿐이다.

더구나 롤스를 비롯한 좌파들은 경제적 자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그

대신에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를 중시한다. 재산권행사는 필요에 따라 제한해도 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그들에게는 교환의 자유는 물론 상속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에 의한 경영권의 제한, 최소임금제도에 의한 노동거래 제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이른바 정신적 자유의 제한은 그들에게 참을 수 없다. 그들이 경제자유보다 정신적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유는 사고와 행동에서 사고만이 중요하고 행동은 사고의 종속변수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이미 제3장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하이에크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듯이 사고와 행동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는 통일체이다. 이것이 자유의 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자유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특히 경제자유 또는 행동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 하나의 이유는 그가 경제부문에서 지나친 국가권력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보았기 때문이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누진세의 증가, 노동조합의 힘의 증가 그리고 복지국가의 확장이 경제자유를 대폭적으로 제한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경제자유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위협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1944년 저서 『노예의 길』에서 계획경제와 현대적인 복지국가를 통하여 자유가 위태롭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의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서 1973~1979년 『법, 입법 그리고 자유』에서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가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보았다. 민주주의가 그룹이기주의 때문에 이권추구민주주의로 변질되어 갔다.

하이에크가 경제자유를 강조한 이유로서 더 결정적인 이유는 지식인들이 정신적 자유와는 달리 행동자유를 가치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의심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런 지식인들의 전통을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전수한 인물이 롤스와 드워킨 같은 좌파학자이다.

하이에크는 이런 지식인들과 대립 각을 세우고 경제자유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67년 자신의 논문 “지식인과 사회주의”에서 지식인들의 반 자유시장 태도가 경제자유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⁵⁾ 그에 의하면 지식인

들의 친 사회주의 성향과 그리고 경제자유에 대한 적대감은 결국 개인의 자유의 손실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지식인들이 지적인 자유와 그리고 행동의 자유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력하게 저항하면서도 그들의 이상과 선호에 따라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경제자유에 대한 국가개입을 촉구하고 나선다. 그들은 이런 촉구를 통하여 타인들의 자유에 개입하고 있다.

하이에크의 주된 관심은 경제자유를 강조하여 지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균형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그의 생각의 출발점은 인간이 사고과정과 행동과정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고와 행동,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인간적 요소이다. 행동의 자유가 없이는 생각의 자유도 없다. 행동이 없이는 사고도 없고 사고가 없이는 행동도 없다. 그래서 자유의 원리는 사고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자유는 원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연구하고 신앙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행할 자유, 즉 행동의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자유를 거부할 경우 지적인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물론 자유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의 관계를 그는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했다. 이런 자유의 상호의존성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다. 때문에 재론을 하자 않는다. 그는 경제자유는 다른 자유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경제자유를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에크가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의견의 자유 같은 정신적 또는 정신적 자유의 가치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 그는 롤스에 못지않게 그리고 좌경화된 지식인들만큼 정신적 자유의 가치를 중요시했다. 예를 들면 『노예의 길』에서 하이에크가 보여주고 있듯이 정신적 자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사상의 자유가 인간이성의 발전, 지식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원동력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이다. 비판은 의견과 사상의 경쟁을 의미한다. 경쟁의 제한은 어느 한 사상이나 의견을 보호하는 행동이다. 보호주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어 독점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사상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은

5) 이 논문은 하이에크 자신의 논문집(Hayek, 1967)에 수록되어 있다.

이런 자유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또는 정신적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로 그런 자유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특정의 일을 행할 자유의 중요성은 이런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상이한 의견을 억압하지 않는 한 새로운 생각을 작성하여 이를 유포시키는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삶의 본질은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식과 이해능력이 성장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이성은 이런 과정에 힘입어 성장한다. 자유의 묘미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개인의 이성은 이런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의견이 이런 정신적 성장과정을 촉진할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성장과정을 계획하거나 조종하는 것은 그 자체 모순이다. 이런 계획과 조종을 위해서는 우리 정신이 자기 자신의 개발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정신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의 이성을 자신의 성장을 촉진하는 인간들끼리의 상호작용과정과 혼돈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억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런 과정의 발전을 방해하고 그 결과 정신적 정체와 이성의 퇴보를 초래한다. 사회주의와 같은 집단주의 사상의 비극은 그 사상이 이성을 최고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 이성의 발전이 의존하고 있는 사회적 과정을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난다.

집단주의 교리 그 자체와 그리고 이 교리의 요구, 즉 의식적인 통제와 의식적인 계획의 요구는 한편으로는 어느 한 개인의 정신을 무제한 적인 지배자로 만든다. 다른 한편 사회과학의 개인주의적 방법만이 이성의 성장을 촉진하는 초개인적 힘에 대한 통찰을 전달할 수 있다. 개인주의는 이런 사회적 과정 앞에서 겸손해하는 태도이며 다른 의견을 관용하는 태도이다. 그리하여 개인주의는 사회적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려고 하는 요구의 근본이 되는 지적인 오만과 정반대이다.

하이에크의 인용문에서 본 롤스 사상의 변천

하이에크와 롤스 사이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롤스의

1971년 저서 이전의 논문들을 보면 하이에크의 생각과 일치되는 점이 대단히 많다. 이것은 하이에크가 인용한 것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하이에크는 롤스를 세 가지 범주와 관련하여 인용하는데, 그 하나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부분이다. 그 두 번째는 법 개념과 관련된 부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정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1) 공리주의와 관련된 부분

하이에크의 저서 1961년 『자유의 헌법』에서 단한 번 롤스를 인용하고 있다.⁶⁾ 하이에크가 인용한 것은 롤스의 논문 은 1955년 “두 가지 개념의 규칙”이다. 인용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전지전능한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는 모든 개개인에게 일반적인 효용의 이유에 따라 행동들의 중요성을 비교할 완전한 자유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에크는 이 인용을 이용하여 벤담의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하이에크는 그의 3부작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중 1976년 제2권 『사회정의의 환상』에서 벤담의 공리주의는 도덕규칙과 법규칙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한 이론이라고 비판하면서 롤스의 1966년 논문 “헌법적 자유와 정의의 개념”을 인용하고 있다. 인식론적 입장에서 공리주의를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롤스의 입장을 하이에크는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롤스는 공리주의에 대한 이런 인식론적 입장을 포기해버렸다. 그런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롤스는 아마도 사회계약론적인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식론적 입장에서 보면 그의 정의이론은 벤담 전통의 공리주의와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인식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롤스는 벤담과 똑같이 하이에크의 의미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속한다.

그러나 1971년 이후 롤스는 이런 인식론적 입장을 완전히 버리고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에 따른 합리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2) 법 개념과 관련된 부분

하이에크는 그의 3부작 『법, 입법 그리고 자유』 가운데 1973년 제1권 『규칙과 질서』⁷⁾에서 롤스를 인용하고 있다. 하이에크가 인용한 것은 롤스의 초기 논문 “공정으로서의 정의”인데 롤스가 행동규칙으로서 “관행(practice)”을 말한 것을 인용

6)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자유의 헌법』 제10장 <법, 명령, 그리고 질서>이다.

7) 인용된 부분은 1973년 제1권 『규칙과 질서』 제4장 “법 개념의 변천”이다.

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행동규칙을 특정목적과 관련된 행동규칙과 목적과 관련이 없는 행동규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후자는 행동성향, 관행과 관습을 지칭한다. 규칙은 특정의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기질이나 또는 성향인데 이런 것은 관행에 반영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이와 같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행동규칙(관행, 관습, 도덕규칙 등)을 중시했다. 그러나 롤스는 초기에는 이런 행동규칙을 중시했지만 그러나 1971년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든 법을 중시했다.

하이에크는 1973년 제1권 『규칙과 질서』에서⁸⁾ 롤스의 1971년 『정의론』에서 개발한 자유의 원칙을 인용하고 있다. 사적 영역을 정하는 규칙의 문제를 다루는 장소이다. 오로지 타인들의 동일한 자유를 보장할 경우에만 어느 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하이에크의 기본적인 발상은 개인의 보호영역을 정하는 규칙들의 자생적인 형성을 설명하는 자리에 롤스의 자유의 원칙을 인용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의 문제는 남는다.

(3)정의의 개념과 관련된 부분

하이에크는 정의란 인간 행동과 관련된 것, 인간들의 상호관계와 관련된 것이지, 그 분배결과를 지칭하는 개념이 될 수 없는 것을 강조한다. 정의는 아무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닌 자생적 질서의 무의도적인 결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자유주의 정의의 개념에서 정의롭지 않다거나 정의롭다는 것은 경쟁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지 경쟁의 결과가 아니다.

하이에크의 이런 정의 사상은 그의 3부작 『법, 입법 그리고 자유』 가운데 1976년 제 2권 『사회정의의 환상』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이 가장 많이 롤스를 인용하는 책이다. 5번이나 인용하고 있다. 자신의 정의개념을 지원하기 위해 롤스를 인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롤스의 1963년 논문“헌법적 자유와 정의 개념”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의의 원칙은 희망된 것의 특정 분배를 정의로운 것이라고 선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과제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포기되어야 한다. 정의의 원칙은 제도들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결과로서 생겨나

8) 인용한 곳은 1973년 제1권 『규칙과 질서』에서 제5장 “자유와 법”이다.

는 분배는 정의롭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롤스의 정의개념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가 이런 개념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의심한다. 의심하게 된 배경은 롤스가 자신의 1971년 저서에서 사회정의 또는 분배정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자신의 마지막 저서 1988년 『치명적 자만』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행운에 근거한 차이를 억누름으로써 롤스의 세계는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을 몽개버렸다고 그리고 그러한 세계에서는 개개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신호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롤스를 비판하고 있다.

하이에크가 옳았다

롤스의 정의론을 기점으로 하여 하이에크와 롤스는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로 갔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누가 옳은가의 문제이다. 사회민주주의가 옳은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옳은가?

롤스와 비교할 때 하이에크의 사상의 핵심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 제한적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이다. 하이에크는 이것이 인류의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번영을 가져온다고 확신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이에크가 옳았고 롤스는 틀렸다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사회로서 사회민주주의는 서민층의 보호를 보증하지 못했다. 시장경제의 결과를 수정하는 분배정의를 가지고는 경제적 번영도 그리고 서민층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시킬 수가 없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런 사실은 우대정책을 남발했던 60년대 말 이후 미국의 경제상황과 그리고 서민층의 삶의 악화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를 건설했던 유럽사회가 10년 이상 지속되어온 1% 내외의 저성장과 11% 내외의 고실업도 그런 결과다. 더구나 1960년대의 가난은 단순히 체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빈곤층을 위한 정책의 실패, 도덕적 해이의 실패로 생겨난 신 빈곤층의 형성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것은 롤스보다도 하이에크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는 비효율적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망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적중했다. 복지국가도 허물어진다고 말했다. 규제와 간섭은 실패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도

옳다.

주택시장의 간섭, 농업의 간섭 등의 실패가 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한다. 빈곤층을 위하는 정책은 의도는 좋지만 빈곤층의 더욱 더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이것도 적중했다. 빈곤의 원인은 국가의 간섭에서 오는 것, 따라서 빈곤층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자유경제, 자유주의라는 것, 이것도 옳았다.

사유재산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옳다. 사유재산제 아래에서만 경제적 번영은 물론 그 밖의 비물질적 가치도 번창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하이에크였다.

하이에크가 옳았다는 것은 한국사회도 입증한다. 노무현정부가 친 서민층을 위한 모든 정책은 결국 서민층의 생활고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고용을 증대하고 취약 근로계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 서민층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성장정책이고 이런 성장정책은 경제자유의 확대라는 것이다.

요컨대 롤스의 차등원칙이 제일 적합한 체제는 롤스가 비판한 자유시장경제이다. 작은 정부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국경제에서 얻은 교훈이다. 이 교훈이 바로 하이에크가 말했던 것이다.

=====

부록

□ 분배정의를 찾아서

“----, although a society is a cooperative venture for mutual advantage, it is typically marked by a conflict as well as an identity of interests. ... A set of principles is required for choosing among the various social arrangements which determine this division of advantages and for underwriting an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the proper distributive shares.”(TJ 4.)

“free and rational persons concerned to further their own interests would accept in an initial position of equality as defining the fundamental terms of their association. ... Once we decide to look for a conception of justice that nullifies

the accidents of natural endowment and the contingencies of social circumstance as counters in quest for political and economic advantage, we are led to these principles.” (TJ 10)

□ 신고전파의 후생경제학

“Under certain conditions competitive prices select the goods to be produced and allocate resources to their production in such a manner that there is no way to improve upon either the choice of productive methods by firms, or the distribution of goods that arises from the purchases of households. There exists no rearrangement of the resulting economic configuration that makes one household better off (in view of its preferences) without making another worse off. No further mutually advantageous trades are possible; nor are there any feasible productive processes that will yield more of some desired commodity without requiring a cutback in another”(TJ.240)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일성

“----theoretically at least a socialist regime can avail itself of the advantages of [market economy] . One of these advantages is efficiency” (TJ 240)